

보도시점 2025.8.14.(목) 10:30
(2025.8.14.(목) 석간)

배포 2025.8.13.(수) 16:00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출연연 현장 간담회 개최

- 과기정통부, 신진·청년 및 중견 연구자, 연구행정·정책 담당자 등과
출연연 연구개발의 임무중심형 혁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출연연 연구자 등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간담회의 일환으로, 출연연 연구개발의 임무중심형 혁신과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연연 소속 신진·청년 연구자, 출연연에서 오랜기간 연구해온 중견연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장, 연구행정 및 정책담당자 등 기술 분야 및 연구·행정을 아우르는 2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출연연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를 출연연 역량강화로 연계할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출연연이 국가 중요임무 기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된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통해 우수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인공 지능 전환을 비롯한 기술동향 변화, 현장 연구개발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반영해 고도화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등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이 곧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임무로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시적 성과창출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은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의 뼈대이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주체로, 출연연 연구자가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국가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과학 연구를 통해 지식이 창출되고 지식이 신기술을 넘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날로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을 고도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인규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양자컴퓨터 및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 연구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출범을 비롯하여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확정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	책임자	과 장	신소영 (044-202-6950)
		담당자	사무관	노명종 (044-202-6952)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종우 (044-202-6730)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02-673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